

1. In an age overwhelmed by an unprecedented flood of information, common sense consistently cautions against the indiscriminate assimilation of data, contending that such unfiltered intake culminates merely in cognitive disarray and the paralysis of sound decision-making. The analogy is often made to a traveler weighed down by an unwieldy, chaotic assortment of luggage, unable to find essentials when needed most. Recently, in fact, such a perspective may turn out to overlook the profound cognitive benefits that emerge from the seemingly aimless and voluminous gathering of knowledge. The human mind, much like a wild garden, often thrives when seeds of every variety are scattered for organic growth that cannot be planned in advance. While chaos may appear contradictory to order, it can paradoxically serve as the fertile ground from which new patterns and paradigms emerge. Thus, in _____, one may increase the kind of intellectual capacity that nurtures spontaneous innovation and insight in an increasingly complex world.

- ① cultivating a wild garden where every flower is free to bloom
- ② erecting high walls to shield the garden from invasive species
- ③ pruning extraneous branches to maintain the amount of fruit
- ④ orchestrating a controlled ecosystem through curated gardening
- ⑤ anchoring gardening strictly within established models

1. 지문 해석

전례 없는 정보의 홍수에 휩싸인 시대에, 상식은 끊임없이 무차별적인 데이터 수용을 경계하며, 이러한 걸러지지 않은 수용은 결국 인지적 혼란과 건전한 의사결정의 마비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종종 비유되기를, 무질서하고 다루기 힘든 짐더미에 짓눌려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필수품을 찾지 못하는 여행자와 같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실 이러한 관점은 겉보기에 목적 없이 방대하게 지식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깊은 인지적 이점을 간과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간의 정신은, 마치 야생 정원처럼, 사전에 계획될 수 없는 유기적 성장을 위해 온갖 종류의 씨앗이 흩뿌려질 때 오히려 번성하는 경우가 많다. 혼돈은 질서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새로운 패턴과 패러다임이 솟아오르는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빈칸) 속에서, 사람은 점점 복잡해지는 세상 속에서 즉흥적 혁신과 통찰을 키워낼 수 있는 지적 역량을 높일 수 있다.

2. 정답 해설

- ① cultivating a wild garden where every flower is free to bloom

해석: → "모든 꽃이 자유롭게 피어날 수 있도록 야생 정원을 가꾸는 것"

본문의 핵심 주장은 무차별적 정보 수용이 창의성과 통찰을 길러낸다는 것입니다. 야생 정원은 "규제 없이 다양한 씨앗이 흩뿌려져 자라나는" 은유입니다. 따라서 "모든 꽃(정보)이 자유롭게 피어나는 정원"을 가꾸는 이미지는, 정보를 제한하거나 선별하지 않고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2. Throughout history, mathematics and the sciences have been celebrated as the pinnacles of human rationality, offering the comforting illusion that the universe is fundamentally ordered, predictable, and reducible to elegant laws. However, many of the greatest advances in human understanding have emerged not from rigid adherence to existing frameworks, but from imaginative leaps often sparked by disciplines traditionally seen as more chaotic, such as philosophy, literature, and the arts. Indeed, mathematical revolutions have frequently owed their origins to conceptual disruptions more characteristic of the humanities than of the sciences. Yet it remains tempting to dismiss the unpredictable, speculative aspects of inquiry as mere distractions from the serious business of systematic knowledge-building. Nevertheless, history reveals that enduring progress often arises precisely at the uneasy intersection between law and imagination. Thus, cultivating genuine insight requires _____.

- ① isolating scientific inquiry from the humanities
- ② incorporating disciplined reasoning with conceptual exploration
- ③ anchoring all intellectual pursuits within established logical systems
- ④ suppressing imaginative impulses for constant progress
- ⑤ privileging abstract speculation without irrational concept

1. 지문 해석

역사 전반에 걸쳐, 수학과 과학은 인간 이성의 정점으로 찬양받아 왔으며, 이 세계가 본질적으로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하며, 우아한 법칙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위안을 주는 환상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인간 이해의 가장 위대한 진보들은 기존의 틀에 엄격히 매달리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더 혼란스럽다고 여겨진 철학, 문학, 예술과 같은 분야에서 촉발된 상상적 도약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실제로, 수학적 혁명들 또한 과학보다 인문학에 더 가까운 개념적 충격에서 종종 그 기원을 찾아야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고 투기적인 탐구의 측면들을 체계적인 지식 구축이라는 진지한 작업을 방해하는 단순한 산만함으로 치부하려는 유혹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보여준다. 지속적인 진보는 종종 법칙과 상상력 사이의 불안한 교차점에서 정확히 발생한다는 것을. 그러므로, 진정한 통찰을 기르기 위해서는 (빈칸)이 필요하다.

2. 정답 해설

정답 : ② incorporating disciplined reasoning with conceptual exploration

지문의 핵심은 "양쪽의 균형"입니다. 수학·과학의 체계적 사고(law, disciplined reasoning)만으로도 부족하고, 인문학적 상상력(imaginative leaps, conceptual exploration)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진정한 진보는 둘이 교차하고 결합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엄격한 이성적 사고(disciplined reasoning)와, 대담하고 창의적인 개념 탐구(conceptual exploration)를 함께 통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